

해를 불러내 수탁

중국의 푸랑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히 오랜 옛날, 이 세상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습니다.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름과 안개처럼 떠 있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것은 거인 구미야와 열두 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루는 구미야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보자꾸나. 그리고 세상만물을 만들어 채워 넣는 거다.”

“좋아요. 그런데 무슨 재료로 만들죠?”

“재료는 찾아보아야지.”

마침 코뿔소와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짐승이 나타나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구미야는 그 짐승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것을 재료로 쓰면 되겠다!”

구미야와 열두 명의 자식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코뿔소와 비슷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넓게 펼친 뒤 그것을 높이 올려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만 있으니까 허전하네. 별들도 만들어야겠다.”

구미야는 코뿔소와 비슷한 짐승의 두 눈을 뽑아 별을 만들어 하늘에 촘촘히 박아 넣었습니다.

구미야와 자식들은 그 짐승의 살로는 땅을 만들었으며, 뼈로는 돌을 만들고 피로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털로는 꽃과 나무를 만들어 땅에 채워 넣었습니다.

“세상을 만들었지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어서 너무 고요하고 쓸쓸하구나. 사람과 동물들을 만들어야겠다.”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구미아는 자식들과 함께 코뿔소와 비슷한 짐승의 머리를 열어 뇌로 사람을 만들고, 꿀수로는 짐승과 새와 벌레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미아와 자식들은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

“예, 저희들도 기뻐요.”

그런데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구미아가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하늘과 땅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았구나.”

구미아와 자식들은 코뿔소와 비슷한 짐승의 네 다리를 떼어 내어 기둥을 만든 뒤, 그것을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세워 하늘을 떠받치게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그 밑은 무엇으로 받치죠?”

“커다란 바다거북을 잡아 땅 밑에 받쳐 놓도록 하자.”

구미아와 자식들은 바다에서 커다란 바다거북 한 마리를 잡아 땅을 떠받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땅 밑에 있는 것이 갑갑하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바다거북이 자주 달아나려고 해서 골치로구나. 우리가 옆에서 계속 감시할 수도 없고...”

“뽄뽄한 짐승을 보초로 세우는 게 어떨까요? 금닭이라면 훌륭하게 그 일을 맡아 할 겁니다.”

그리하여 금닭을 보초로 세워 바다거북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금닭은 눈을 부릅뜨고 바다거북을 감시했는데, 너무 피곤하여 눈을 감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바다거북이 달아나려고 해 이따금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구미아와 자식들은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사람과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만들었구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

“모두들 행복해 보여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구미아와 자식들은 자기들이 만든 세상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세상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홉 개의 해와 열 개의 달이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구. 행복에 겨워 어쩔 줄을 모르는군.”

“눈꼴 시려서 못 보겠어. 땅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도 다들 저렇게 행복해할까?”

심술이 난 이들은 이 세상을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뜨거운 빛을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이 마르고 물이 증발해 버려 모든 생물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구미아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우리가 만든 세상을 파괴하려고 들어? 용서할 수 없다!”

구미아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겨누어 하나씩 쏘아 맞혔습니다.

“으윽!”

해와 달들은 화살을 맞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해와 달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어디를 도망치느냐?”

구미아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화살이 아슬아슬하게 달의 옆을 스쳤습니다. 이 때부터 달은 온몸이 차가워져 뜨거운 빛을 내리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은 구미아를 피해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빛이 내리쬐지 않으니 세상은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너무 추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 큰일입니다. 이러다가 모든 생물들이 얼어 죽겠어요.”

“으음, 해와 달을 불러내야겠다. 그런데 애네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구미아와 자식들은 해와 달을 불러내기로 하고 제비를 불렀습니다.

“너는 해와 달을 찾아내거라.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비는 해와 달을 찾아 세상 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해와 달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동쪽 끝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오, 그래? 수고했다.”

구미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 그 동안 고생 많았지? 드디

어 해와 달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우리 함께 가서 해와 달을 데려오자.”

구미아는 동물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의 동쪽 끝으로 떠났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이들은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님! 달님! 어서 나오세요! 우리를 위해 밝은 빛을 주세요!”

그러나 해와 달은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구미아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이 동굴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해와 달을 불러내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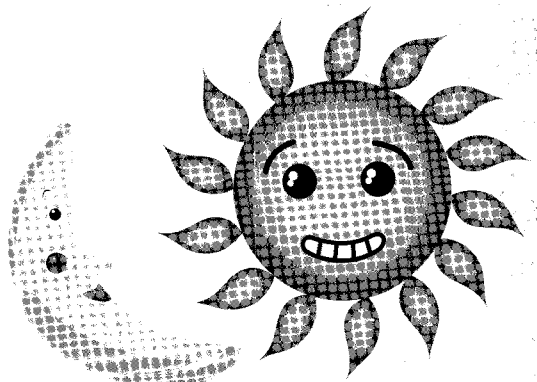
수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탉은 동굴 앞에 서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멋진 해님, 고운 달님!

어서 나와 주세요.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세요.

해와 달은 동굴 속에서 수탉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니다. 정겨운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갈까?”

“안 돼! 구미야가 우리를 활로 쏘아 죽일 거야.”
해와 달은 이런 이야기를 나눈 뒤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싫어요. 구미야의 화살에 맞아 죽느니 여기서 굶어 죽겠어요.”

다른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미야 님의 부탁으로 당신들을 모시러 왔어요. 구미야 님은 당신들을 활로 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해와 달은 동굴 속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미야가 자기들을 활로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탉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는 안전하니까, 그 때 편안히 나오세요.”

이 때부터 수탉은 해를 불러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나가면 무엇을 주실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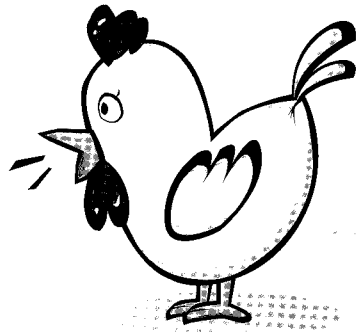
“글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동물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구미야의 딸인 해희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프 요리를 잘 하잖아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질 때 해님에게는 금빛 수프를 드리고, 달님에게는 은빛 수프를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동물들은 해와 달에게 부탁했습니다.

“해님과 달님은 낮과 밤에 번갈아 나오세요.”



해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밤이 무서워서 싫어.”

달이 이 말을 듣고 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밤에 나갈 테니 너는 낮을 맡아.”

“고마워, 달님아.”

이리하여 해와 달이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위를 치우자.”

동물들이 바위에 달라붙었습니다.

“영차, 영차!”

동물들은 힘을 합쳐 바위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멧돼지가 나왔습니다.

“저리 비켜! 천하장사인 내가 치울게.”

멧돼지는 뒤로 물러서더니 손살같이 달려가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썩 갈라져 해와 달이 동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에 다시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고, 낮과 밤도 생겨났습니다.

이 때부터 수탉은 새벽 일찍 일어나 노래를 불러 해를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